



승오스님의

### 경전읽기

#### 금강경 ②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세속적인 출세의 길,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길,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할 불자의 길 등을 찾아 해매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나그네의 길일 따름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6바라밀(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은 대승불교의 수행덕목(修行德目)이라고 말하고 있다. 6바라밀은 대승불교에서는 미혹과 여러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보람있는 참상을 위해 환경에 얽매고 주위의 사정에 움직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 사는 보람을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6바라밀을 들고 있다.

바라밀(波羅蜜)이란 '건넌다'는 뜻인데, 미혹의 바다를 건너 저쪽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보시(布施)란 남

매진하는 것이며, 결코 마음을 앞길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정신없이 패버리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이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게 하여 모든 사물의 진실한 상을 바로 보고 마음의 작용을 좋은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기로운이 필요하다.

지혜란 위와 같은 수행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것으로, 지혜를 성취하여 사물의 진정한 상을 알면 미혹해 있는 사람들의 일을 알고 자신의 노력으로 남이 구원되었으면 하는 보시의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6바라밀 가운데 지혜바라밀에 대하여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설한 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 6바라밀 실천 '삶의 거울' 집착 말고 함이 없이 하라

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교육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고, 경제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베풀고,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과 부드러운 얼굴, 고운 말씨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남에게 베풀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이 모자라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므로 자기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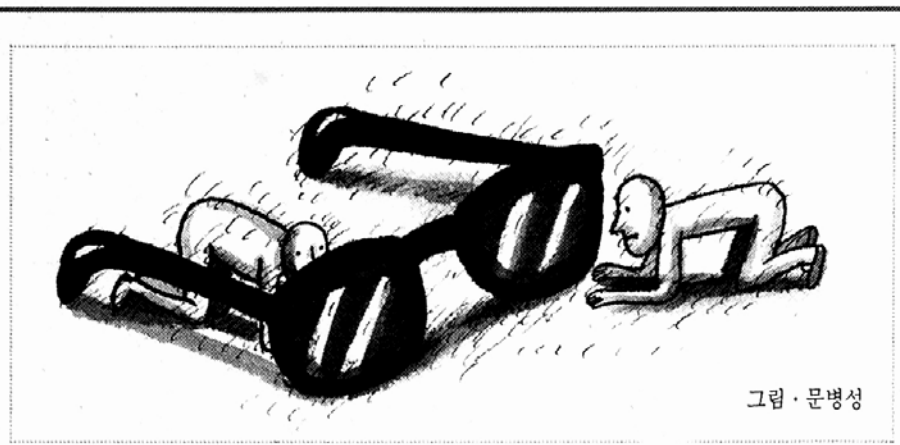
지계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자신이 정직하다고 남의 정직하지 않음을 성내서는 안된다. 자신도 올바르게 하면서 남이 잘못하더라도 성내지 않는 인욕이 필요한 것이다.

인욕이란 참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참는 것은 아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도를 넘으면 자신의 잘못조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진이란 자신의 할 일에

아니므로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라(佛說般若波羅蜜 即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이 말은 마음을 심상(心相)이 없으면 허공을 취하지도 않고 불지(佛地)를 의지하지도 않고 지혜에 집착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반야바라밀의 묘리이다. 즉, 무상(無相)과 무위(無爲)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자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계획과 반성을 하는 기준도 역시 6바라밀에 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남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부처님의 경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인가? 얼마나 자신의 입장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지혜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것인가? 이렇게 하투를 시작하는 계획을 아침에 세우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과연 얼마나 실천을 하였는가를 반성할 때 우리 불자들이 지금은 범부에 지나지 않지만 조금씩 부처님의 세계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 천지만물 있는 그대로 보라

### 불교와 과학 ②

#### 분별심

초등학교 2학년이 다니는 조카 아이에게 집 앞 가게에서 양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뿌듯한 얼굴을 하고 들어온 아이의 봉투 안에는 양파는 없고 양파깡이 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어른이 시킨 심부름에 대한 최대한의 상의를 보였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세계 안에서 선택한 최대한의 행위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성과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성과 안에서 세계는 성과 위에 비친 모습으로 제한될 뿐이다. 그러한 세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편견이고 선입관이 되는 것이며,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생관이나 역사관이라고 한다. 선입관과 인생관이라는 말의 뉘앙스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어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둘의 뉘앙스 차이는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낳는 한 질곡의 원인이 되었다. 선입관의 장르와 인생관의 장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변증법적 과정의 압박을 견뎌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역사는 영원한 삶의 압박이 짓누르는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구과학의 역사는 이러한 압박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물 사이로 전이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서구 고대 그리스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사람이 바라보는 사물의 세계 속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보았

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이는 사물은 진리의 진정한 거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객관성이라고 말했고, 객관성은 서구과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그 화두는 사물에 천착되었으며, 뉴턴과 같은 서구 근대 과학혁명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사물을 관찰하는 데에는 원천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과학이론을 형성해 가는 추론과정에 대한 기준이며 사물을 바라보는 밑그림과 사물을 파

#### 과학적 분별다른 인간소의 현상 문명위기 핵심

학이론의 변수로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했다. 이 두 과정을 과학철학에서는 '정당화의 논리'와 '발견의 논리'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발견의 논리 즉 발견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과학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배경들, 사회적 관습들, 역사적 관습이라는 색안경을 벗어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보통 '관찰의 이론 의존성'(theory ladenness)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서 말하고 있다. 즉 과학적 발견을 위한 어떤 경험적 관찰도 기존의 과학이론에 의해 주어진 사고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과학은 사람과 사물 사이의 영원한 갈등구조를 안고 가야만 한다.

과학의 이 같은 갈등구조는 대상을 바라보는 분별심을 만들어 놓았다. 분별심은 사물들을 차이에 따라

## "명상수련 받고 나니 폭력성격 바뀌었어요"

### 지구촌 불교 / 명상하는 죄수들

살인, 폭력, 약물 중독 등의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명상을 한다?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이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나 인도 티하르(Tihar)교도소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삼발라선>(2000년 9월)지의 보도를 보면, 두 교도소의 '명상 프로그램'이 죄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범 예방에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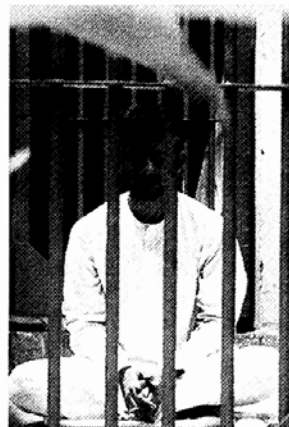
3년 전 살인죄로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토마스 A. 아론(31·미국)은 교도소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시작한 지 3년만에, 그에 대한 교도관들의 선입견을 일신했다. 교도관들은 "아론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분노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고 남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론과 같은 죄목으로 지난해부터 인도 델리 외곽의 티하르 교도소에 수감된 부핀더 싱(23·인도) 역시 명상을 하면서 폭력적인 자신의 품성을 바꾸고 있다. 수닐 굽타 소장(티하르 교도소)은 "그는 내면의 자신을 찾는 명상이 가능한 이곳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그의 변화에 주목했다. <삼발라선> 지는 이러한 성공 사례에 대해 "각국의 교도소에서 인간행방이 실현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 성공 사례가 다른 교도소로 알려지면서 교도소 내 명상 붐(Boom)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는 재소자들이 명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방과 같은 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 "자기반성·이타심 함양에 최적"

#### 美·인도·뉴질랜드 교도소 도입



◇명상중인 티하르 재소자.

있으며, 1975년부터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티하르 교도소에는 재소자 1만여 명 중 1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두 교도소는 미국과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도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파급 효과 역시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소 내 명상 프로그램은 미국과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뉴질랜드, 영국, 대만 등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원로 정치인 브리안(前 자연법 당 당수)은 '명상'과 같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브리안이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뉴질랜드의 과학 학회에서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공격성 등을 감소시키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71년부터 술·알콜·마약 등의 중독자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이를 면밀히 관찰한 과학학회는 "교육심리학"에 "5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이들의 재범 비율은 20%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과거 재범 비율은 52%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교도소에서 4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윌리엄 루서(40·폭력)의 "교도소에서 명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신에 대한 반성이고, 그 다음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이다"는 말에서 과학자와 정치인이 재소자 교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명상을 떠올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살아생전에 「우리말 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용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운문  
4x6배판 (크라운판) / 1,620면 (42g미식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순금 금장 양장 제본 / 인조가죽 커버

이조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질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범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아귀·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재물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재팔난·관재구설·병고역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니다. 특히 백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니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고암 중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해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 단체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 불사회향·회갑·진갑·철순·49재·100재·영가천도를 위한 범공양 단 한편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 주문처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55-2  
☎(02) 734-7614, 739-8745 FAX (02)735-2344  
·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937 (김정길)